

어린이책에도 '무게'가 있어요...

전쟁, 죽음 관련 어린이책



《히로시마》

니스 마사모토 글 | 니시무라 시게오 그림 | 이용성 옮김 | 세계절출판사 | 70쪽 | 값 15,000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역사적 배경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핵무기의 과학원리와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전쟁 전 평화롭던 히로시마가 전쟁이 터진 뒤 어떻게 긴장과 불안이 감도는 도시로 변해갔는지,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날 어떤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날 이후 아픔 속에서 재건되어 가는 도시의 모습과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전쟁과 핵에 관련해 일어난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자폭탄의 과학적 원리와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 등 역사를 비롯 과학지식까지 담은 교양 필독서다.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지음 | 이희재 그림 | 청년사 | 230쪽 |

값 8,000원

교실에서 장난감 권총에 맞은 보미의 소박한 활동이 평화모임 결성과 시위로 연결되는 과정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그린 책. 보미의 활동이 신문에 실리고, 미국에 사는 제니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면서 보미의 활동은 결국 미국의 '총기규제법안' 통과로까지 이어진다. 비비탄 사건 하나로 어른들은 꿈이라고 손놓고 있는 일을 해내는 아이들의 힘이 잘 그려진 책이다.



《내 동생은 어느 별에 살고 있을까》

릴리아네 슈타이너 글·그림 | 김완균 옮김 | 김영사 |

46쪽 | 값 6,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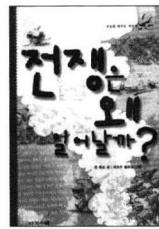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인 '죽음'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그려낸 책. 죽은 동생 지나를 그리워하는 언니 올가는 동생이 있는 곳을 알고 싶어하던 중 침대밑에서 지나의 별을 찾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

질페로 지음 | 김미희 옮김 | 다섯수레 | 78쪽 |

값 6,000원

전쟁은 왜 일어나고, 인류는 언제부터 전쟁을 했는지 등 전쟁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는 책. 전쟁과 관련된 여섯 가지 질문과 답을 아이들과 선생님의 질문, 대담 형태로 풀어쓰고 있다. 왜 전쟁이 나쁘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지, 문명인들인 독일 국민들은 왜 히틀러를 위해 싸웠는지 등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되고 친절할 대담이 이어진다.



《할아버지 양복 입고 있어요?》

아멜리에 프리드 글 | 약키 클라익 그림 | 유혜자 옮김 |

여명미디어 | 30쪽 | 값 6,500원

꼬마 부르노의 눈에 비친 만남과 이별 이야기.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던 부르노가 할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담았다. 할아버지를 찾는 부르노에게 가족들의 설명은 어렵지만 하다. 형은 "할아버지는 공동묘지에 있다"고도 하고,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도 말하는 것. 할아버지를 찾아해매며 할아버지와 추억을 그리는 부르노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그려져 있다. 색다른 그림이 인상적이다.

《아부지 아부지》

구은영 글 | 송재호 그림 | 대교출판 | 222쪽 |

값 7,000원

어린이의 눈으로 본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고 있는 책.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을 겪은 작가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이 이야기는 죽고, 죽이는 장면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답답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고통들을 한 편의 동화로 담아내고 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아픈 이야기로 남아 있다.



《잘 가라, 내 동생》

빌리슈에즈만 지음 | 김서정 옮김 | 민은경 그림 |

크레옹하우스 | 18쪽 | 값 7,500원

1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죽게 된 벤아민의 이야기.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들 곁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아픔을 견디는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벤아민은 점점 자신의 죽음에 익숙해져간다. 어떻게 이별하는지, 슬픔을 이겨내는지 등을 차분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책이다. 잊혀지고 헤어지는 것조차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